

폐경이 갱년기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및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 완 균* · 장 임 원**

= Abstract =

Effect of Menopause on the Mental Health of Climacteric Women

Wan-Kyoon Shin* and Im-Won Chang,** M.D.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An attempt was made to estimate the effect of menopause on the mental health of climacteric women.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 were questioned to 278 premenopausal women and 302 postmenopausal women.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alysis of variance in each variable of menopause, age, educational level, religion and partnership of husband, and two-way analysis of variance in two variables of menopause and one of other variable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Menopause increased the scores of validity, psychopathic deviate, hypomania and paranoia scale, but conversely decreased the score of masculinity-femininity scale.
2. The older the climacteric women were, the lower scores of masculinity-femininity scale were observed.
3. The older the premenopausal women were, the higher scores of depression, hysteria, psychopathic deviate, psychasthenia and schizophrenia scale were observed, on the contrary, all scores of the postmenopausal women were decreased by the increment of their ages.
4.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of climacteric women were, the higher scores of correction and masculinity-femininity scale were observed, but the scores of hypochondriasis, hysteria, schizophrenia and social introversion scale were decreased by the increment of their educational level.
5. The scores of hypomania scale were higher in women of Buddhism than other religions.
6. The scores of validity, paranoia, psychasthenia, schizophrenia and social introversion scale were higher in widows than women with husband.

I. 서 론

갱년기는 신체발달 과정상 성숙기로부터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호소하는 신체적 및 정신건강장애를 갱년기 증상이란한다.

특히 여성에서의 갱년기 증상은 다양하고 개인에 따라서는 심한 병적증상으로 까지 나타나는 바, 흔히 호

소하는 갱년기 증상에는 열감(hot flash), 발한(perspiration), 심계항진(palpitation), 수족냉증(cold hands and foot), 지각이상(numbness and tingling), 소양증(formication), 두통(headache), 현기증(vertigo), 식욕감퇴(loss of appetite), 설사(diarrhea), 변비(constipation), 피로(fatigue), 불면증(insomnia), 불안정(irritability), 신경과민(nervousness), 집중력감퇴(inability to concentrate), 질식감(feeling of suffocation), 우울증(depression) 등이 있다^{1~3)}.

갱년기 증상은 갱년기 여성에서 일어나는 가장 현저한 생리적 변화인 폐경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폐경에 의한 가장 현저한 생리적 변화는 hormone 분비의 변화이다⁴⁾.

폐경기가 지난 여성에서는 FSH와 LH가 증가하는데 특히 FSH의 증가가 심하다.

Chacravarti 등에 의하면 FSH는 폐경후 3~5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며 이때의 최고치는 월경기 중에서 볼 수 있는 최고치보다 약 15배 더 많다고 하였다⁵⁾.

LH치 역시 폐경후 5년에 최고치에 달하지만 월경기중에 나타나는 최고치보다 더 현저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⁶⁾.

폐경후에는 난소기능이 저하되므로 estrone 및 estradiol의 혈중치가 낮아 지는데 특히 estradiol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폐경후에는 혈중 free estrogen 중 estrone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⁵⁾.

그밖에 androsteredion은 폐경후 폐경전보다 약 40% 감소하지만 testosterone은 별 변화가 없다고 한다⁶⁾.

폐경은 생리적 변화 이외에도 이를 경험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stress로써 흔히 작용한다.

Lesh⁷⁾나 Kaluger⁸⁾들에 의하면 폐경은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중에서 가장 stress를 주는데 폐경을 여성의 매력과 젊음의 상실, 노년기로의 이행으로 받아 들인다.

李⁹⁾에 의하면 여성들은 폐경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폐경후에 여성적인 매력과 남편의 관심을 잃지 않을까 근심하며 결혼생활에 파국이 오지 않을까도 걱정한다고 한다.

최¹⁰⁾은 50% 이상의 여성들이 폐경을 “인생의 황혼기” 또는 “더 이상 쓸모없어지고 여자다움의 상실”로 인식하는등, 폐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갱년기 증상과 폐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는 많다. Lauritzen¹⁰⁾들은 estrogen을 투여할때 갱년기 증상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실험한 결과 estrogen 투여후에 갱년기 증상이 해소되었음을 보

고하였다. 그러나 Rybo 등은¹¹⁾ 갱년기 증상과 estrogen 분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estrogen은 폐경후에 점차 감소되었으나 폐경된 여성과 폐경되지 않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발생을 비교한 결과 열감의 발생만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Maoz¹²⁾들도 이스라엘의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폐경과 관계가 있었던 증상은 열감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Mckinlay¹²⁾들은 런던에 거주하는 45세에서 60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열감과 발한은 폐경과 관련이 있었으나 두통, 현기증, 심계항진, 불면증, 우울증 등은 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한과 열감 즉, 혈관운동계증상(vasomotor symptom)의 원인이 estrogen 감소와 FSH와 LH의 증가라고 하는 견해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는 학자도 있다.

Detre¹³⁾들은 혈관운동계 증상의 병리는 아직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estrogen 감소와 FSH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Askel¹⁴⁾들은 21세에서 39세 여성의 난소절제 수술후에 estrogen이 감소되고 FSH가 증가되었으나 37.5%의 여성만이 혈관운동계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수술후 이 증상을 경험하는 여성들의 혈중 estrogen과 FSH와 LH의 농도는 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여성들의 것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폐경후의 여성에서 FSH의 농도와 열감증상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또한, FSH의 투여가 열감의 경험회수와 정도를 증가시키지 않음이 보고되었다¹⁵⁾.

최근에 이르러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갱년기 증상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되고 있다.

Stryker¹⁶⁾는 홀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신체검진과 안심을 시킨결과 증상이 즉시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Achte¹⁶⁾는 여성이 갱년기에 느끼는 심리적인 공포심과 열등감이 우울과 불안을 초래하여 이러한 우울과 불만이 전환반응에 의하여 정신·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폐경과 노화현상에 대한 태도, 결혼과 직업에 대한 만족등의 심리상태가 갱년기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Lesh⁷⁾는 stress가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FSH와 LH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stress로 인하여 갱년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llinger¹⁷⁾들은 stress가 estrogen으로 전환될 수

있는 androstenedion의 분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estrogen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보고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갱년기 증상이 폐경의 생리적 변화와 관계가 있느냐, 폐경에서 오는 심리적 stress와 관계가 있느냐에는 비록 엇갈린 보고를 하고 있으나 폐경과 깊은 관계가 있음은 일치하고 있다.

저자들은 소위 갱년기 증상이 정신신경성장에서 호소될 수 있는 증상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폐경이 갱년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정신건강의 평가를 위하여는 설문조사에 의한 검사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설문의 내용은 한 나라의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이상로동이 작성한 표준성격검사 No. 571, Dergotis 등에 의하여 제작된 것을 김 광일 등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표준화한 Symptom Check List-90 (SCL), Mckinley 등에 의하여 제작된 것을 정 범모 등이 우리의 문화상황에 맞게 수정한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 등이 있다.

MMPI는 개개인의 수검자에게 실시하여 인성비교표를 작성하고 MMPI에 잘 훈련된 검사자로 하여금 인성 비교표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해석하여 개인에 대한 정신건강진단 또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제작된 것이다^{18~20)}.

이 검사에서 측정하려는 인성특징(personality characteristic)은 일단 형성된 후에는 쉽사리 변용되기 어려운 비교적 항구적인 인성특징(personality trait)들이 아니라 상담에 의한 지도나 치료에 따라서는 변화될 수 있는 정신신경적경향(neurotic tendency), 정신병적증후 또는 증후군(psychotic symptom or syndrome), 및 반사회적 이상성격(psychopathic personality) 또는 행동장애(behaviour disorder) 등의 인성 특질이다^{18,19)}.

따라서 MMPI의 목적은 이러한 인성특질에서의 비정상성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상담지도나 정신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비정상적이고 불건강한 방향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미리 알아내어 미연방지의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또, 본검사가 철저한 경험적 방법에 의해서 제작되었고 비교적 높은 임상타당도를 가졌으며 검사문항이 상당한 정도의 투사법적 함축성(projective implication)을 띠고 있음은 MMPI가 널리 사용케 되는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MMPI의 활용은 비교적 활발하다. 즉, 이 정균은 1962년 이래 환자들을 대상으로하여 임상적으로 활용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21~24)} 진 위교는 정상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발표를 하였다²⁵⁾.

MMPI는 본래 개개인에게 적용하여 개개인의 인성특성을 파악하고자 고안되었다.

그러나, 장 임원은 산업재해군과 비재해군에 대하여 MMPI를 집단적으로 실시 분석함으로써 산업재해요인을 분석한 바 있어 인구집단의 인성특성을 파악하고 특정인구 집단에서의 특징적인 인성특성을 지배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²⁷⁾.

이에 저자들은 폐경전후의 여성들에게 MMPI를 실시하여 폐경이 갱년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연령, 종교, 학력, 남편의 생존여부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II. 연구조사방법

1. 연구조사 대상

1984년 9월 1일부터 1985년 2월 28일까지의 본 연구조사기간 중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40~60세의 갱년기 여성 580명을 연구조사대상으로 한 바, 폐경전 여성이 278명, 폐경후의 여성이 302명이었다.

2. 연구조사 방법

모든 연구조사 대상자들에게 MMPI와 폐경유무, 연령, 학력, 종교 및 남편의 생존여부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연구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 성실하고 정직한 응답을 받아 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에서는 전 대상자들을 개별면담하여 본 연구조사가 갱년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자료 및 지견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문조사는 철저한 비밀보장아래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MMPI 설문중 “그렇다” 또는 “아니다”를 뚜렷이 답변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우세하게 느껴지는 쪽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가능한 무응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성적분석은 X² 검정 및 SPSS 전산처리 프로그램에 의한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 이원배치법의 분산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examinees by age and state of menopause

| State of menopause | Age | | | | | Total |
|--------------------|-----------|-----------|-----------|----------|-----------|------------|
| | 40~43 | 44~47 | 48~51 | 52~55 | >56 | |
| Pre-menopausal | 134(48.2) | 93(33.5) | 46(16.5) | 5(1.8) | — | 278(100.0) |
| Post-menopausal | 6(2.0) | 22(7.3) | 62(20.5) | 93(30.8) | 119(39.4) | 302(100.0) |
| Total | 140(24.1) | 115(19.8) | 108(18.6) | 98(16.9) | 119(20.5) | 590(100.0) |

Figures in parentheses mean percentage, $X^2=361.673$, $p<0.001$

Table 2. Distribution of examinees by educational level and state of menopause

| State of menopause | Educational level | | | | | Total |
|--------------------|-------------------|---------------|-------------|------------|------------|------------|
| | Primary School | Middle School | High School | University | Unresponse | |
| Pre-menopausal | 53(19.1) | 82(29.5) | 114(41.0) | 26(9.4) | 3(1.1) | 278(100.0) |
| Post-menopausal | 124(41.1) | 69(22.8) | 77(25.5) | 16(5.3) | 16(5.3) | 302(100.0) |
| Total | 177(30.5) | 151(26.0) | 191(32.9) | 42(7.2) | 19(3.3) | 580(100.0) |

Figures in parentheses mean percentage, $X^2=47.018$, $p<0.001$

Table 3. Distribution of examinees by religion and state of menopause

| State of menopause | Religion | | | | Total |
|--------------------|-----------|---------------|----------|-------------|------------|
| | Buddhism | Protestantism | Catholic | No Religion | |
| Pre-menopausal | 50(18.0) | 36(12.9) | 12(4.3) | 180(64.7) | 278(100.0) |
| Post-menopausal | 93(30.8) | 59(19.5) | 45(14.9) | 105(34.8) | 302(100.0) |
| Total | 143(24.7) | 95(16.4) | 57(9.8) | 285(49.1) | 580(100.0) |

Figures in parenthesis mean percentage, $X^2=56.148$, $p<0.001$

Table 4. Distribution of examinees by partnership of husband and state of menopause

| State of menopause | Partnership of husband | | Total |
|--------------------|------------------------|-----------|------------|
| | Survival | Death | |
| Pre-menopausal | 255(91.7) | 23(8.3) | 278(100.0) |
| Post-menopausal | 215(71.2) | 87(28.8) | 302(100.0) |
| Total | 470(81.0) | 110(19.0) | 580(100.0) |

Figures in parenthesis mean percentage, $X^2=40.444$, $p<0.001$

III. 연구조사 성적

1. 연구조사 대상자들의 특성

연구조사 대상자들의 연령, 학력, 종교 및 남편의 생존여부별 분포를 폐경전후에 따라 분류한 바 Table 1, 2, 3, 4와 같다. 연령별 분포는 40~43세, 44~47세, 48

~51세, 52~55세, 56세 이상이 각각 140, 115, 108, 98, 119명으로 비교적 각 연령군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폐경전후별 연령분포는 폐경전 조사군에서 47세 이하가 81.7%, 폐경후 조사군에서는 48세 이상이 90.7%로 47~48세가 폐경이 주로 일어나는 연령임을 보여 주고 있고, 폐경전 조사군의 연령이 폐경후 조사군보다 뚜렷하게 낮았다($X^2=361.673$, $p<0.001$).

Table 5. Results of MMPI in pre-menopausal women and post-menopausal women

| State of menopause | Scales | Lie | Validity | Correction | Hypochondriasis | Depression | Hysteria | Psychopathic deviate | Masculinity-femininity | Paranoia | Psychasthenia | Schizophrenia | Hypomania | Social introversion |
|-------------------------|--------|---------------|----------------|----------------|-----------------|----------------|----------------|----------------------|------------------------|----------------|----------------|-----------------|----------------|---------------------|
| Pre-menopausal (n=278) | | 6.18 ±2.41 | 12.51 ±6.57 | 13.12 ±4.33 | 20.19 ±5.23 | 30.89 ±5.69 | 26.81 ±5.87 | 25.33 ±4.98 | 27.55 ±4.66 | 11.71 ±4.37 | 34.89 ±5.86 | 36.67 ±7.95 | 19.79 ±4.84 | 37.35 ±6.91 |
| Post-menopausal (n=302) | | 6.09 ±3.37 | 15.48 ±7.97 | 12.35 ±4.36 | 21.15 ±5.72 | 31.03 ±6.06 | 27.77 ±6.43 | 26.67 ±5.18 | 26.43 ±4.76 | 13.27 ±4.83 | 36.00 ±7.28 | 39.62 ±10.15 | 21.89 ±4.95 | 37.57 ±7.07 |
| T-test | | N.S. | p<0.01 | N.S. | N.S. | p<0.05 | <0.05 | p<0.01 | p<0.01 | p<0.01 | N.S. | p<0.01 | p<0.01 | p<0.05 |

Table 6. Results of MMPI by age

| Age | Scales | Lie | Validity | Correction | Hypochondriasis | Depression | Hysteria | Psychopathic deviate | Masculinity-femininity | Paranoia | Psychasthenia | Schizophrenia | Hypomania | Social introversion |
|---------------|--------|---------------|----------------|----------------|-----------------|----------------|----------------|----------------------|------------------------|----------------|----------------|-----------------|----------------|---------------------|
| 40~43 (n=140) | | 5.93 ±2.55 | 12.10 ±6.04 | 12.93 ±4.13 | 20.01 ±5.46 | 30.53 ±5.70 | 26.80 ±5.99 | 25.19 ±4.79 | 28.37 ±4.76 | 11.70 ±4.33 | 34.80 ±6.16 | 36.29 ±7.71 | 19.40 ±4.66 | 37.33 ±7.14 |
| 44~47 (n=115) | | 6.32 ±2.46 | 12.93 ±6.73 | 13.30 ±4.71 | 20.46 ±5.00 | 31.31 ±5.93 | 27.06 ±5.85 | 25.73 ±4.95 | 26.66 ±4.89 | 12.09 ±4.34 | 35.63 ±6.16 | 37.39 ±8.42 | 20.37 ±5.04 | 37.44 ±7.13 |
| 48~51 (n=108) | | 6.34 ±2.23 | 13.90 ±7.67 | 12.40 ±4.41 | 20.96 ±6.08 | 31.18 ±6.58 | 27.40 ±6.78 | 26.12 ±5.65 | 26.82 ±4.64 | 12.66 ±4.84 | 34.88 ±7.39 | 38.13 ±10.07 | 20.82 ±4.99 | 37.51 ±6.95 |
| 52~55 (n=98) | | 5.89 ±2.28 | 14.66 ±7.51 | 12.41 ±4.14 | 20.77 ±5.57 | 30.68 ±5.66 | 27.54 ±6.18 | 26.41 ±4.98 | 26.70 ±4.76 | 12.70 ±4.66 | 35.53 ±6.73 | 38.81 ±9.87 | 21.44 ±4.90 | 36.63 ±6.77 |
| 56~ (n=119) | | 6.21 ±2.34 | 17.10 ±8.68 | 12.46 ±4.44 | 21.46 ±5.40 | 21.41 ±5.85 | 27.89 ±6.15 | 26.90 ±5.24 | 25.95 ±4.30 | 13.64 ±5.15 | 36.61 6.97 | 40.85 ±0.18 | 22.72 4.93 | 38.30 ±7.00 |
| Total (n=580) | | 6.13 ±2.39 | 14.06 ±7.33 | 12.73 ±4.37 | 20.69 ±5.50 | 30.97 ±5.94 | 27.31 ±6.18 | 26.03 ±5.12 | 26.95 ±4.67 | 12.52 ±4.66 | 35.47 ±6.67 | 38.21 ±9.22 | 20.88 ±4.89 | 37.47 ±7.00 |
| ANOVA | | N.S. | p<0.01 | N.S. | N.S. | N.S. | N.S. | N.S. | p<0.01 | p<0.05 | N.S. | p<0.01 | p<0.01 | N.S. |

Table 7. Results of MMPI by religion

| Religion \ Scales | Lie | Validity | Correction | Hypochondriasis | Depression | Hysteria | Psychopathic deviate | Masculinity-femininity | Paranoia | Psychasthenia | Schizophrenia | Hypomania | Social introversion |
|----------------------|---------------|----------------|----------------|-----------------|----------------|----------------|----------------------|------------------------|----------------|----------------|-----------------|----------------|---------------------|
| Buddhism (n=143) | 5.87 ±2.06 | 14.83 ±7.48 | 11.97 ±4.25 | 21.40 ±5.43 | 30.98 ±5.64 | 28.22 ±6.15 | 26.56 ±5.20 | 27.41 ±4.72 | 13.09 ±4.75 | 35.44 ±6.76 | 39.20 ±10.08 | 22.14 ±5.21 | 36.42 ±6.60 |
| Protestantism (n=95) | 6.28 ±2.35 | 14.27 ±8.75 | 13.21 ±4.46 | 19.73 ±5.17 | 30.32 ±6.37 | 26.61 ±6.58 | 26.23 ±5.22 | 27.30 ±4.55 | 12.35 ±5.15 | 34.45 ±7.44 | 37.50 ±10.27 | 20.60 ±4.70 | 37.63 ±7.22 |
| Catholic (n=57) | 6.22 ±2.57 | 14.10 ±8.09 | 12.49 ±4.48 | 20.38 ±5.55 | 31.17 ±5.50 | 27.77 ±6.21 | 26.26 ±4.89 | 27.66 ±5.04 | 12.91 ±3.84 | 36.05 ±6.69 | 39.29 ±8.21 | 20.57 ±5.14 | 38.21 ±7.72 |
| No Religion (n=285) | 6.17 ±2.53 | 13.52 ±7.24 | 12.95 ±4.38 | 20.0 ±5.65 | 31.13 ±6.08 | 27.00 ±6.07 | 25.66 ±5.16 | 26.50 ±4.74 | 12.19 ±4.66 | 35.70 ±6.54 | 37.76 ±8.68 | 20.44 ±4.86 | 38.21 ±7.03 |
| Total (n=580) | 6.13 ±2.39 | 14.06 ±7.52 | 12.72 ±4.34 | 20.69 ±5.50 | 30.97 ±5.94 | 27.31 ±6.17 | 26.03 ±5.14 | 26.96 ±4.73 | 12.52 ±4.70 | 35.47 ±6.69 | 38.21 ±9.33 | 20.88 ±4.97 | 37.47 ±7.00 |
| ANOVA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N.S. | p<0.05 | N.S. |

Table 8. Results of MMPI by educational level

| Educational level \ Scales | Lie | Validity | Correction | Hypochondriasis | Depression | Hysteria | Psychopathic deviate | Masculinity-femininity | Paranoia | Psychasthenia | Schizophrenia | Hypomania | Social introversion |
|----------------------------|---------------|----------------|----------------|-----------------|----------------|----------------|----------------------|------------------------|----------------|----------------|-----------------|----------------|---------------------|
| Primary School (n=177) | 5.89 ±2.21 | 15.54 ±8.13 | 12.10 ±4.24 | 21.70 ±5.64 | 31.49 ±6.08 | 27.88 ±6.30 | 25.84 ±5.00 | 25.97 ±4.39 | 13.40 ±4.97 | 36.46 ±7.38 | 39.97 ±10.42 | 21.71 ±5.19 | 38.88 ±7.01 |
| Middle School (n=151) | 6.10 ±2.44 | 13.86 ±6.73 | 12.60 ±4.52 | 20.95 ±5.29 | 31.25 ±5.63 | 27.66 ±5.95 | 25.83 ±5.48 | 26.66 ±4.32 | 12.43 ±4.56 | 35.45 ±6.79 | 38.25 ±8.88 | 20.64 ±5.33 | 37.33 ±6.73 |
| High School (n=191) | 6.19 ±2.58 | 13.21 ±7.31 | 13.27 ±4.13 | 20.30 ±5.54 | 30.70 ±6.11 | 27.13 ±6.14 | 26.54 ±5.02 | 27.96 ±4.98 | 12.09 ±4.45 | 35.12 ±6.22 | 37.20 ±8.76 | 20.28 ±4.69 | 36.44 ±7.22 |
| University (n=42) | 7.02 ±1.99 | 12.00 ±7.44 | 13.97 ±4.30 | 17.83 ±5.42 | 29.35 ±5.96 | 24.28 ±6.15 | 25.40 ±5.14 | 27.45 ±4.61 | 11.28 ±4.45 | 33.23 ±5.13 | 34.66 ±7.55 | 20.38 ±3.95 | 36.47 ±6.24 |
| Total (n=561) | 6.13 ±2.39 | 14.03 ±7.44 | 12.77 ±4.30 | 20.73 ±5.42 | 31.00 ±5.96 | 27.30 ±6.15 | 26.04 ±5.14 | 26.95 ±4.61 | 12.53 ±4.95 | 35.49 ±6.69 | 38.17 ±9.27 | 20.83 ±4.98 | 37.45 ±6.95 |
| ANOVA | N.S. | p<0.05 | N.S. | p<0.01 | N.S. | p<0.01 | N.S. | p<0.01 | p<0.05 | p<0.05 | p<0.01 | p<0.05 | p<0.01 |

학력별 분포는 국민학교 177명, 중학교가 151명, 고등학교가 191명, 대학이 42명으로 대학을 제외한 학력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폐경전후별 학력분포는 폐경전 조사군이 폐경후 조사군보다 뚜렷하게 높은 학력을 보였다($X^2=47.018, p<0.001$).

종교별 분포는 무교가 285명(49.1%), 불교가 143명(24.7%), 기독교가 95명(16.4%), 천주교가 57명(9.8%)의 순이었다. 폐경전후별 종교분포는 폐경전 조사군과 폐경후 조사군에서 모두 무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순위로 분포하고 있으나 무교가 폐경전후별로 각각 63.3%, 32.8%를 보이는 등, 폐경전후의 종교분포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X^2=56.148, p<0.001$).

남편의 생존여부별 분포는 생존이 470명(81.0%), 사별이 110명(19.0%)이었다. 폐경전후별 남편생존여부의 분포는 폐경전 조사군에서 생존이 91.7%, 사별이 8.3%이었고, 폐경후 조사군에서 생존이 71.2%, 사별이 28.8%로써 폐경전 조사군에서 남편의 생존이 뚜렷하게 많았다($X^2=40.444, p<0.001$).

2. MMPI 성적

1) 폐경전후별 MMPI 성적의 비교 : 폐경전후별 MMPI 각 척도들의 점수는 Table 5와 같은 바, MMPI 각 척도별로 폐경전후의 차이를 t-검정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타당성 척도들중 신뢰성 척도의 점수는 폐경후 조사군이 폐경전 조사군보다 매우 유의하게 높고, 교정척도와 허구성척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척도들중 정신병질-반사회적 이상성격 척도, 편집증척도, 정신분열병척도, 경조증척도의 점수는 폐경후 조사군이 폐경전 조사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에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는 매우 유의하게 낮았으며 우울증척도, 히스테리척도, 사회적 내향성 척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연령별 MMPI 성적의 비교 : 연령별 MMPI 각 척도의 점수는 Table 6과 같은 바, MMPI 각 척도 점수의 연령별 차이를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타당성 척도들중 신뢰성 척도와 임상척도들중 정신분열병척도 및 경조증척도의 점수는 연령이 많을수록 매우 유의한 점수의 증가를 보였고, 편집증척도는 유의한 점수증가를 보인 반면에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매우 유의한 점수의 감소를 보였다.

3) 종교별 MMPI 성적의 비교 : 종교별 MMPI 각 척

Table 9. Results of MMPI by partnership of husband

| Partnership of husband | Scales | | | | | | | | | | ANOVA | p | |
|------------------------|---------------|----------------|----------------|-----------------|----------------|----------------|----------------------|------------------------|----------------|----------------|----------------|----------------|----------------|
| | Lie | Validity | Correction | Hypochondriasis | Depression | Hysteria | Psychopathic deviate | Masculinity-femininity | Paranoia | Psychasthenia | | | Schizophrenia |
| Survival (n=470) | 6.13 ±2.42 | 13.46 ±7.19 | 12.82 ±4.42 | 20.56 ±5.53 | 30.81 ±5.80 | 27.22 ±6.29 | 25.81 ±5.12 | 27.02 ±4.82 | 12.19 ±4.54 | 35.16 ±6.59 | 37.51 ±9.07 | 20.58 ±5.03 | 37.17 ±7.09 |
| Death (n=110) | 6.17 ±2.24 | 16.61 ±8.34 | 12.30 ±4.11 | 21.23 ±5.39 | 31.63 ±6.45 | 27.69 ±5.67 | 26.96 ±5.10 | 26.70 ±4.35 | 13.94 ±5.11 | 37.06 ±6.85 | 41.20 ±9.85 | 22.16 ±4.74 | 38.74 ±6.54 |
| Total (n=580) | 6.13 ±2.39 | 14.06 ±7.42 | 12.72 ±4.31 | 20.69 ±5.50 | 30.97 ±5.93 | 27.31 ±6.18 | 26.03 ±5.12 | 26.96 ±4.74 | 12.52 ±4.65 | 35.47 ±6.64 | 38.21 ±9.22 | 20.88 ±4.98 | 37.47 ±6.99 |
| | N.S. | p<0.01 | N.S. | N.S. | N.S. | N.S. | p<0.05 | N.S. | p<0.01 | p<0.01 | p<0.01 | p<0.01 | p<0.05 |

Table 10. Results of MMPI by state of menopause and age

| State of menopause Age | Lie | | Validity | | Correction | | Hypochondriasis | | Depression | | Hysteria | |
|---------------------------|-----------------|------------------|------------------|------------------|-----------------|------------------|-----------------|------------------|-----------------|------------------|-----------------|------------------|
|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 40~43 (n=134) | 5.96 ±2.56 | 5.33 ±2.50 | 11.84 ±5.90 | 18.00 ±6.78 | 12.88 ±4.12 | 14.00 ±4.60 | 19.96 ±5.41 | 21.16 ±6.85 | 30.38 ±5.59 | 33.83 ±7.57 | 26.67 ±5.85 | 29.66 ±8.68 |
| 44~47 (n=93) | 6.55 ±2.50 | 5.31 ±2.07 | 12.63 ±6.74 | 14.22 ±6.73 | 13.55 ±4.64 | 12.22 ±4.91 | 20.21 ±5.00 | 21.50 ±4.94 | 31.01 ±6.11 | 32.59 ±5.04 | 26.58 ±5.75 | 29.09 ±5.98 |
| 48~51 (n=46) | 6.08 ±1.58 | 6.53 ±2.61 | 13.93 ±7.70 | 13.88 ±7.72 | 12.58 ±4.00 | 12.27 ±4.72 | 21.04 ±5.28 | 20.90 ±6.65 | 31.93 ±5.64 | 30.62 ±7.19 | 27.65 ±6.42 | 27.22 ±7.09 |
| 52~55 (n=5) | 6.20 ±2.77 | 5.88 ±2.26 | 15.40 ±8.47 | 14.62 ±7.51 | 16.40 ±5.77 | 12.20 ±3.97 | 18.20 ±3.70 | 20.91 ±5.64 | 33.00 ±7.07 | 30.55 ±5.60 | 27.20 ±3.03 | 27.55 ±6.32 |
| 50 (n=119) | | 6.21 ±2.34 | | 17.10 ±8.68 | | 12.46 ±4.43 | | 21.41 ±5.40 | | 31.20 ±5.85 | | 27.89 ±6.15 |
| Total | 6.18 ±2.41 | 6.09 ±2.36 | 12.51 ±6.55 | 15.48 ±7.97 | 13.12 ±4.31 | 12.35 ±4.40 | 20.19 ±5.23 | 21.15 ±5.75 | 30.85 ±5.80 | 31.03 ±6.06 | 26.81 ±5.88 | 27.77 ±6.44 |
| ANOVA Menopause Age | N.S. N.S. | | p<0.01 p<0.05 | | N.S. N.S. | | N.S. N.S. | | N.S. N.S. | | N.S. N.S. | |

Table 11. Results of MMPI by state of menopause and religion

| State of menopause Religions | Lie | | Validity | | Correction | | Hypochondriasis | | Depression | | Hysteria | |
|---------------------------------|-----------------|------------------|-----------------|------------------|-----------------|------------------|-----------------|------------------|-----------------|------------------|-----------------|------------------|
|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 Buddhism (n=50) | 5.88 ±2.00 | 5.87 ±2.11 | 13.24 ±5.18 | 15.68 ±8.37 | 12.18 ±3.88 | 11.87 ±4.45 | 21.06 ±5.16 | 21.59 ±5.58 | 30.50 ±5.80 | 31.24 ±5.56 | 28.06 ±5.86 | 28.31 ±6.32 |
| Protestantism (n=36) | 5.83 ±2.27 | 6.55 ±2.37 | 13.02 ±8.58 | 15.03 ±8.83 | 13.19 ±4.54 | 13.22 ±4.44 | 20.11 ±5.19 | 19.50 ±5.19 | 31.77 ±5.75 | 29.44 ±6.62 | 26.63 ±6.47 | 26.59 ±6.70 |
| Catholic (n=12) | 5.91 ±2.60 | 6.31 ±2.59 | 10.75 ±4.91 | 15.00 ±6.11 | 11.33 ±4.47 | 12.80 ±4.49 | 19.33 ±5.26 | 20.66 ±5.65 | 30.50 ±3.80 | 3.135 ±5.90 | 26.75 ±5.34 | 28.04 ±6.45 |
| No Religion (n=180) | 6.34 ±2.53 | 5.87 ±2.52 | 12.39 ±6.62 | 15.54 ±7.87 | 13.47 ±4.36 | 12.03 ±4.27 | 20.08 ±5.29 | 21.79 ±6.12 | 30.90 ±5.98 | 31.54 ±6.25 | 26.58 ±5.79 | 27.75 ±6.49 |
| Total (n=278) | 6.18 ±2.42 | 5.87 ±2.32 | 12.39 ±6.59 | 15.54 ±8.08 | 13.47 ±4.31 | 12.03 ±4.37 | 20.19 ±5.24 | 21.15 ±5.68 | 30.89 ±5.83 | 31.03 ±6.04 | 26.81 ±5.86 | 27.77 ±6.13 |
| ANOVA Menopause Religion | N.S. N.S. | | p<0.01 N.S. | | N.S. N.S. | | N.S. N.S. | | N.S. N.S. | | N.S. N.S. | |

도의 점수는 Table 7과 같은 바 MMPI 각 척도의 점수차이를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그 결과 임상척도들 중의 경조증 척도만이 차이를 보

였으나, 무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군에서의 경조증 척도의 점수는 각각 20.4±4.86, 20.6±4.70, 20.6±5.14로서 서로 차이가 없었고, 불교신자군은 23.1±5.21로

| Psychopathic deviate | | Masculinity -femininity | | Paranoia | | Psychasthenia | | Schizophrenia | | Hypomania | | Social introversion | |
|----------------------|------------------|-------------------------|------------------|-----------------|------------------|-----------------|------------------|-----------------|------------------|-----------------|------------------|---------------------|------------------|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 25.03 ±4.77 | 28.66 4.36 | 28.42 4.74 | 27.16 ±5.38 | 11.61 ±4.31 | 13.50 ±4.76 | 34.63 ±5.95 | 38.50 ±9.85 | 36.03 ±7.62 | 42.00 ±8.24 | 19.39 ±4.63 | 19.66 ±5.78 | 37.37 ±7.09 | 38.66 ±8.22 |
| 25.38 ±5.03 | 27.22 ±4.39 | 26.48 ±4.62 | 27.40 ±5.94 | 11.38 ±4.09 | 15.09 ±4.16 | 34.93 ±5.73 | 38.59 ±7.15 | 36.65 ±8.12 | 40.50 ±9.13 | 19.90 ±5.12 | 22.36 ±3.69 | 37.21 ±7.23 | 38.40 ±6.79 |
| 25.63 ±5.61 | 26.48 ±5.69 | 27.32 ±4.17 | 26.45 ±5.09 | 12.71 ±4.67 | 12.61 ±4.67 | 35.34 ±6.25 | 34.54 ±8.17 | 38.34 ±8.75 | 37.98 ±11.02 | 20.73 ±4.68 | 20.88 ±5.25 | 37.91 ±6.50 | 37.22 ±7.59 |
| 29.40 ±4.15 | 26.25 ±4.99 | 26.20 ±2.68 | 26.73 ±4.86 | 11.00 ±4.69 | 12.79 ±4.67 | 37.20 ±6.45 | 35.44 ±6.77 | 39.00 ±6.04 | 38.03 ±10.05 | 19.60 ±3.91 | 21.54 ±4.95 | 37.20 ±7.39 | 36.60 ±6.78 |
| | 26.90 ±5.24 | | 25.96 ±4.30 | | 13.64 ±5.15 | | 36.61 ±6.97 | | 40.84 ±10.18 | | 22.72 ±4.93 | | 38.30 ±7.00 |
| 25.33 ±4.99 | 26.67 ±5.19 | 27.55 ±4.59 | 26.43 ±4.77 | 11.71 ±4.38 | 13.27 ±4.84 | 34.89 ±5.94 | 36.00 ±7.24 | 36.67 ±7.96 | 39.62 ±10.24 | 19.79 ±4.83 | 21.89 ±4.94 | 37.35 ±6.98 | 37.57 ±7.08 |
| p<0.01 N.S. | | p<0.01 p<0.01 | | p<0.05 N.S. | | N.S. N.S. | | p<0.01 N.S. | | p<0.01 N.S. | | N.S. N.S. | |

| Psychopathic deviate | | Masculinity -femininity | | Paranoia | | Psychasthenia | | Schizophrenia | | Hypomania | | Social introversion | |
|----------------------|------------------|-------------------------|------------------|-----------------|------------------|-----------------|------------------|-----------------|------------------|-----------------|------------------|---------------------|------------------|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 25.92 ±5.09 | 26.91 ±5.25 | 28.34 ±4.64 | 26.91 ±4.71 | 12.38 ±3.87 | 13.47 ±5.14 | 34.36 ±6.20 | 36.03 ±7.00 | 36.50 ±7.56 | 40.66 ±10.97 | 20.92 ±4.77 | 22.80 ±5.33 | 36.68 ±6.28 | 36.29 ±6.79 |
| 25.50 ±4.89 | 25.67 ±5.40 | 28.94 ±3.70 | 26.30 ±4.76 | 11.66 ±4.90 | 12.77 ±5.29 | 35.36 ±5.91 | 33.89 ±8.19 | 38.12 ±9.16 | 37.13 ±10.95 | 19.69 ±4.65 | 2.115 ±4.68 | 38.38 ±6.92 | 37.16 ±7.41 |
| 24.16 ±5.27 | 26.82 ±4.69 | 30.16 ±4.28 | 27.00 ±5.06 | 11.75 ±3.07 | 13.22 ±3.99 | 34.16 ±3.97 | 36.55 ±6.48 | 36.75 ±4.35 | 39.97 ±8.88 | 19.41 ±4.14 | 20.88 ±5.37 | 39.00 ±8.64 | 39.00 ±7.54 |
| 25.19 ±5.02 | 26.49 ±5.32 | 26.92 ±4.73 | 25.76 ±4.71 | 11.57 ±4.52 | 13.29 ±4.72 | 35.03 ±5.98 | 36.87 ±7.31 | 36.54 ±7.99 | 39.92 ±9.43 | 19.59 ±4.90 | 21.95 ±4.41 | 37.23 ±7.05 | 38.71 ±6.94 |
| 25.33 ±5.03 | 26.67 ±5.20 | 27.55 ±4.57 | 26.43 ±4.76 | 11.71 ±4.40 | 13.27 ±4.87 | 34.89 ±5.95 | 36.00 ±7.25 | 36.67 ±7.99 | 39.62 ±10.22 | 19.79 ±4.82 | 21.89 ±4.95 | 37.35 ±6.97 | 37.57 ±7.05 |
| p<0.01 N.S. | | p<0.01 N.S. | | p<0.01 N.S. | | N.S. N.S. | | p<0.01 N.S. | | p<0.01 0.05 | | N.S. N.S. | |

서 다른 종교의 신자군보다 매우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4) 학력별 MMPI 성적의 비교 : 학력별 MMPI 각 척

도의 점수는 Table 8과 같은 바, MMPI 각 척도의 점수차이를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임상척도들중 심기증척도, 히스테리척도, 정신분열병

Table 12. Results of MMPI by state of menopause and educational level

| Scales State of menopause Educational level | Lie | | Validity | | Correction | | Hypochondriasis | | Depression | | Hysteria | |
|---|-----------------|------------------|-------------------|------------------|-----------------|------------------|-----------------|------------------|-----------------|------------------|-----------------|------------------|
|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 Primary School (n=53) (n=124) | 6.15 ±2.16 | 5.78 ±2.23 | 13.22 ±6.71 | 16.53 ±8.50 | 12.58 ±4.46 | 11.90 ±4.15 | 21.50 ±5.04 | 2.178 ±5.90 | 32.34 ±5.92 | 31.16 ±6.14 | 27.96 ±5.39 | 27.85 ±6.67 |
| Middle School (n=82) (n=69) | 6.50 ±2.42 | 5.63 ±2.21 | 13.69 ±6.81 | 14.15 ±6.67 | 13.31 ±4.48 | 11.86 ±4.49 | 20.28 ±4.98 | 2.175 ±5.57 | 30.97 ±5.15 | 31.59 ±6.16 | 26.91 ±5.68 | 28.56 ±6.17 |
| High School (n=114) (n=77) | 5.82 ±2.51 | 6.75 ±2.61 | 11.85 ±6.18 | 15.29 ±8.36 | 13.05 ±3.99 | 13.59 ±4.33 | 20.12 ±5.49 | 20.58 ±5.63 | 30.54 ±6.06 | 30.93 ±6.22 | 26.79 ±6.04 | 27.63 ±6.31 |
| University (n=26) (n=16) | 7.07 ±2.22 | 6.94 ±1.61 | 10.57 ±6.94 | 14.31 ±8.02 | 14.50 ±4.31 | 13.12 ±4.27 | 17.42 ±4.56 | 18.50 ±3.59 | 29.61 ±8.39 | 28.93 ±5.20 | 24.38 ±6.48 | 24.12 ±9.95 |
| Total (n=275) (n=286) | 6.20 ±2.39 | 6.07 ±2.35 | 12.52 ±6.55 | 15.48 ±8.02 | 13.14 ±4.31 | 12.41 ±4.27 | 17.42 ±5.17 | 18.50 ±5.65 | 29.61 ±5.81 | 28.93 ±6.12 | 24.38 ±5.86 | 24.12 ±6.42 |
| ANOVA | Menopause | | Educational level | | | | | | | | | |
| | N.S. | | N.S. | | p<0.01 N.S. | | N.S. p<0.05 | | N.S. N.S. | | N.S. p<0.05 | |

Table 13. Results of MMPI by state menopause and partnership of husband

| Scales State of menopause Partnership of husband | Lie | | Validity | | Correction | | Hypochondriasis | | Depression | | Hysteria | |
|--|-----------------|------------------|------------------------|------------------|-----------------|------------------|-----------------|------------------|-----------------|------------------|-----------------|------------------|
|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 Survival (n=255) (=215) | 6.16 ±2.44 | 6.09 ±2.40 | 12.39 ±6.47 | 14.73 ±7.79 | 13.19 ±4.39 | 12.38 ±4.43 | 20.13 ±5.30 | 21.07 ±5.76 | 30.54 ±5.68 | 31.13 ±5.92 | 26.71 ±5.91 | 27.83 ±6.67 |
| Death (n=23) (n=87) | 6.47 ±2.04 | 6.09 ±2.40 | 1.386 ±7.62 | 17.34 ±8.41 | 12.34 ±3.54 | 12.29 ±4.26 | 20.82 ±4.45 | 2.134 ±5.63 | 34.78 ±5.78 | 30.80 ±6.44 | 27.86 ±5.32 | 27.64 ±5.79 |
| Total (n=278) (n=302) | 6.18 ±2.41 | 6.09 ±2.37 | 12.51 ±6.57 | 12.51 ±6.57 | 13.12 ±4.33 | 12.35 ±4.36 | 20.19 ±5.23 | 21.15 ±5.72 | 30.89 ±5.69 | 31.03 ±6.06 | 26.81 ±5.87 | 27.77 ±6.43 |
| ANOVA | Menopause | | Partnership of Husband | | | | | | | | | |
| | N.S. | | N.S. | | p<0.01 | | N.S. | | N.S. | | N.S. | |

척도, 사회적-내향성척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매우 유의한 점수의 증가를 보였고, 편집증척도, 정신쇠약증척도, 경조증척도는 유의한 점수증가를 보인 반면에 임상척도들중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는 매우 유의하게, 타당성척도들중 교정척도는 유의하게 점수의 감소를 보였다.

5) 남편의 생존여부별 MMPI 성적의 비교 : 남편의

생존여부별 MMPI 각 척도의 점수는 Table 9와 같은 바, MMPI 각 척도의 점수차이를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타당성척도들중 신뢰성척도와 임상척도들중 편집증척도, 정신쇠약증척도, 정신분열병척도, 경조증척도는 남편과 사별한 조사군이 남편이 생존해 있는 조사군보다 매우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임상척도들중

| Psychopathic deviate | | Masculinity -femininity | | Paranoia | | Psychasthenia | | Schizophrenia | | Hypomania | | Social introversion | |
|----------------------|------------------|-------------------------|------------------|-----------------|------------------|-----------------|------------------|------------------|------------------|-----------------|------------------|---------------------|------------------|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 25.24 ±4.08 | 26.09 5.08 | 26.45 ±4.11 | 25.77 ±4.51 | 12.11 ±4.29 | 13.95 ±5.15 | 35.84 ±6.23 | 36.72 ±7.83 | 38.05 ±8.78 | 40.79 ±10.98 | 20.50 ±4.83 | 22.22 ±5.28 | 39.50 ±7.05 | 38.61 ±7.01 |
| 25.19 ±5.59 | 26.59 ±5.29 | 27.08 ±4.23 | 26.15 ±4.41 | 11.69 ±4.39 | 13.30 ±4.62 | 34.32 ±6.19 | 36.79 ±7.25 | 37.06 ±7.96 | 39.66 ±9.74 | 19.69 ±5.14 | 21.78 ±5.37 | 36.71 ±6.52 | 38.07 ±6.94 |
| 25.75 ±4.72 | 27.72 ±5.25 | 28.21 ±5.14 | 27.61 ±4.74 | 11.97 ±4.40 | 12.27 ±4.54 | 35.19 ±5.78 | 35.01 ±6.85 | 36.40 ±7.19 | 38.38 ±9.95 | 19.50 ±4.78 | 2.144 ±4.33 | 36.76 ±7.31 | 35.97 ±7.10 |
| 24.23 ±4.50 | 27.31 ±5.29 | 28.23 ±4.52 | 26.18 ±4.83 | 10.19 ±4.44 | 13.06 ±3.09 | 33.38 ±5.02 | 33.00 ±5.46 | 33.92 ±7.13 | 35.87 ±8.29 | 19.69 ±4.27 | 21.50 ±3.16 | 37.46 ±5.56 | 34.87 ±7.09 |
| 24.34 ±4.99 | 26.72 ±5.19 | 27.53 ±4.64 | 26.38 ±4.57 | 11.74 ±4.38 | 13.29 ±4.81 | 34.89 ±5.93 | 36.07 ±7.32 | 36.68 ±7.98 | 39.60 ±10.29 | 19.71 ±4.68 | 21.86 ±4.79 | 37.34 ±6.88 | 37.56 ±7.02 |
| p<0.01 N.S. | | p<0.05 p<0.01 | | p<0.01 N.S. | | N.S. N.S. | | p<0.01 p<0.05 | | p<0.01 N.S. | | N.S. p<0.05 | |

| Psychopathic deviate | | Masculinity -femininity | | Paranoia | | Psychasthenia | | Schizophrenia | | Hypomania | | Social Introversion | |
|----------------------|------------------|-------------------------|------------------|------------------|------------------|-----------------|------------------|------------------|------------------|-----------------|------------------|---------------------|------------------|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pre-meno-pausal | post-meno-pausal |
| 25.15 ±4.98 | 26.59 ±5.19 | 27.54 ±4.70 | 26.41 ±4.91 | 11.59 ±4.41 | 12.90 ±4.59 | 34.62 ±5.85 | 35.67 ±7.35 | 36.46 ±8.01 | 38.76 ±10.05 | 17.76 ±4.91 | 21.56 ±5.01 | 31.10 ±6.89 | 37.24 ±7.32 |
| 27.26 ±4.97 | 26.88 ±5.17 | 27.65 ±4.19 | 25.45 ±4.38 | 13.00 ±3.87 | 14.19 ±5.38 | 37.95 ±5.88 | 36.82 ±7.10 | 39.04 ±7.23 | 41.77 ±10.40 | 20.04 ±3.89 | 22.72 ±4.80 | 40.13 ±7.09 | 38.37 ±6.38 |
| 25.33 ±4.98 | 26.67 ±5.18 | 27.55 ±4.66 | 26.43 ±4.76 | 11.72 ±4.37 | 13.27 ±4.83 | 34.89 ±5.86 | 36.00 ±7.28 | 36.67 ±7.95 | 39.62 ±10.15 | 19.79 ±4.84 | 21.89 ±4.95 | 37.35 ±6.91 | 35.57 ±7.07 |
| p<0.01 N.S. | | p<0.05 N.S. | | p<0.01 p<0.01 | | p<0.05 N.S. | | p<0.01 p<0.01 | | p<0.01 N.S. | | N.S. p<0.05 | |

정신병질-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와 사회적 내향성척도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6) 폐경전후에 따른 연령, 종교, 학력 및 남편의 생존여부별 MMPI 성적의 비교 : 본 연구조사의 대상자들은 폐경전후에 따라 연령, 종교, 학력 및 남편의 생존여부의 분포가 현저하게 달랐으므로 폐경전후에서의 MMPI 성적의 차이가 과연 폐경때문인지 혹은 연령,

종교, 학력 및 남편의 생존여부 때문인지 확실히 알수는 없다. 그리하여 저자들은 폐경전후에서 각각 연령, 종교, 학력 및 남편의 생존여부별 MMPI 성적을 Table 10, 11, 12, 13과 같이 정리하고 이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 의하여 성적을 검정하였다.

폐경은 타당성척도들중 신뢰성척도와 임상척도들중 정신병질-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 남향성-여향성홍

미척도, 정신분열병척도, 경조증척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편집증척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은 타당성척도들중 신뢰성척도와 임상척도들중 남향성-여향성흥미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력은 임상척도들중 심기증척도와 남향성-여향성흥미척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타당성척도들중 교정척도와 임상척도들중 히스테리척도, 정신분열병척도 및 사회적 내향성척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종교는 임상척도들중 경조증척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편의 생존여부는 타당성척도들중 신뢰성척도와 임상척도들중 정신분열병척도에는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임상척도들중 편집증척도, 정신쇠약증척도, 사회적 내향성척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이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의 결과를 앞에서의 일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의 결과와 동시에 고찰하면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는 연령은 정신분열병척도와 경조증척도에, 학력은 편집증척도와 경조증척도에, 남편의 생존여부는 정신병질-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와 경조증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실에 있어서는 어떤 요인이 M-MPI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요인들 상호간의 관계때문에 마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검정됨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성적은 학력, 종교, 남편의 생존여부는 폐경전 조사군과 폐경후에 관계없이 같은 경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연령은 폐경전 조사군에 대해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점수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폐경후 조사군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점수를 감소시키고 있음이다.

IV. 고 찰

MMPI의 허구성척도, 신뢰성척도, 교정척도등의 타당성척도들은 두가지 검사기능을 갖는다¹⁸⁾.

첫째는 수검자들에 대한 수검태도 및 수검능력의 평가기능이고 다른 또 하나의 기능은 임상척도들과 관련하여서 인성특징 또는 정신건강을 반영하는 기능이다¹⁸⁾.

본 연구 조사에서 타당성척도들중 허구성척도는 폐경, 연령, 학력, 종교, 남편의 생존여부중 어느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신뢰성척도는 폐경, 연

령, 남편의 생존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고 교정척도는 학력에 의해서 만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척도는 폐경전보다 폐경후에,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보다 사별한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폐경전에는 높은 점수를 폐경후에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성척도가 자기 비하적인 태도가 강한 경우에 점수증가를 보이는 점¹⁸⁾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폐경전보다 폐경후에 그리고 보통보다 늦은 연령까지 생리를 계속하는 경우나 이른 연령에 폐경을 하는 경우에 자기 비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정척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임상척도들중 심기증척도는 자신의 신체적 기능 및 건강에 대하여 지나치게 병적인 관심을 갖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실제로 몸에 기질적인 변화가 있을때 보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자신의 몸에 대한 걱정에 진착할 때에 높게 나타난다¹⁸⁾. 본 연구 조사에서 심기증척도는 학력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신체적기능이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폐경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울증척도는 우울증의 임상징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¹⁸⁾. 본 연구 조사에서 우울증척도는 폐경, 연령, 학력, 종교 및 남편의 생존여부등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李³⁾의 폐경기에 정신장애를 일으킨 환자 17명에 대한 MMPI 조사결과에서 우울증척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적의 차이는 본 연구조사가 일반 갱년기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데 반하여 李는 정신장애를 일으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다만 본 연구조사에서도 폐경전 조사군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 우울증척도의 점수가 높고. 보통보다 생리가 늦은 연령까지 계속되거나 이른 연령에 폐경이 온 경우에 우울증척도의 점수가 다소 높게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히스테리척도는 신체적 징후를 수단으로해서 어려운 갈등이나 난관을 회피하거나 귀찮은 책임을 일버무리려는 등의 히스테리증의 정도 및 경향을 파악하는 척

도이다¹⁸⁾.

본 연구조사에서 히스테리척도는 심기증척도와 마찬가지로 학력에 의해서만이 영향을 받았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어려운 감동이나 난관에 부딪혔을때 이를 온당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결여된 때문으로 보인다.

정신병질-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는 정신병질적인 장애를 가진 비도덕적 및 반사회적 성격의 경향 및 정도를 측정하려는 척도¹⁹⁾ 본 연구조사에서는 폐경에 의해서만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리가 보통보다 늦은 연령까지 계속되거나 이른 연령에 일어난 여성들에서 이상성격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에게서 야기될 수 있는 성적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신병질-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가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는 남편의 생존여부와 유관하였으나 폐경과 남편의 생존여부사이의 이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는 남편의 생존여부와는 무관하였는데 이는 폐경전후에 있어 남편의 생존여부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는 마치 남편의 생존여부가 유관한 것처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는 여성의 경우 여향성 흥미로부터 이탈되어 남향성 흥미를 보이는 때에 점수가 낮아지는 척도이다¹⁸⁾. 본 연구조사에서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는 폐경 및 학력, 연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즉, 폐경전보다 폐경후에, 또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에서 주목되는 성적은 다른 척도의 경우 폐경전에 조사군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폐경후 조사군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다시 말해서 생리가 보통보다 늦은 연령까지 지속되거나 폐경이 이른 연령에서 시작되는 경우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폐경전후에 관계없이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서 여향성 흥미로부터 이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폐경후에, 그리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estrogen 홀몬의 분비가 감소하고 성기관이 퇴화되는 신체적 변화때문이라고 보아지며 학력이 낮을수록 여향성 흥미의 이탈이 심한 것은 신체적 변화에 더욱더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편집증척도는 집착증, 의심증, 과민성 및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등의 각종 망상의 정도와 징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¹⁸⁾. 본 연구조사에서 편집증척도는 폐경과 남편의 생존여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즉 폐

경전보다 폐경후에,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보다 사별한 경우에 편집증 성향을 보였는데 매인관계에서 과민하고 부드럽지 못한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진다.

학력은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는 편집증척도와 유관하였으나 폐경과 학력사이의 이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는 무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폐경전후에 따라 학력분포의 차이가 있어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 마치 학력이 편집증척도와 유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쇠약증척도는 신경증적 정신쇠약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¹⁹⁾. 본 연구조사에서 정신쇠약증척도는 남편의 생존여부에 의해서만이 영향을 받았는데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보다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 정신쇠약의 경향을 보였고 특히 폐경전에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경전 남편과 사별한 여성에서 불안,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정신분열병척도는 정신병의 범주에 속하는 정신분열병 환자와 얼마나 유사하느냐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¹⁸⁾.

본 연구조사에서 정신분열병척도는 폐경 및 학력, 남편의 생존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정신분열병척도는 폐경전보다 폐경후에,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보다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 바, 억압되어 있고 현실에 냉담하며 무관심한 사람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¹⁸⁾과 유관한 것이라 보아진다.

연령은 일원배치법의 분산분석에서는 정신분열병척도와 유관하였으나 폐경과 연령의 이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에서는 무관하게 나왔다. 이는 폐경후 조사군의 연령이 높아 폐경의 영향이 마치 연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폐경전 조사군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폐경후 조사군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시 말해서 보통보다 늦은 연령까지 생리가 지속되거나 이른 연령에 폐경이 시작된 여성에서 정신분열병척도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만은 뚜렷하였다.

경조증척도는 사고와 행동의 과잉, 지나친 정서적 흥분, 판념의 비약, 열광적이며 과도한 낙천주의 및 과잉의욕등으로 나타나는 경조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¹⁸⁾.

본 연구조사에서 경조증척도는 폐경과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즉, 폐경전보다 폐경후에, 종교에 있어서는 무교나 기독교 또는 천주교의 신자들에서 보

다 불교신자들에서 높은 경조증척도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경조증척도가 야심이 있고 활기에 찬, 정력적인 정상인의 경우에 척도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¹⁸⁾ 비추어 보거나 이들에게서 우울증척도가 낮은 점수를 보이지도 않아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연령 및 학력, 남편의 생존여부는 각각의 일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에서는 경조증척도와 유관하게 나타났으나 각각의 폐경과의 이원배치법에 의한 분산분석에서는 무관하게 보였는데 이는 폐경전후에 따라 연령 및 학력, 남편의 생존여부등의 분포가 차이가 있어 폐경이 미치는 영향이 마치 연령 및 학력, 남편의 생존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내향성척도는 대인관계의 기피, 비사회성등의 인성특징을 측정하는 척도이다⁸⁹⁾. 본 연구조사에서 사회적 내향성척도는 학력과 남편의 생존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보다 남편과 사별한 경우에 높은 척도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 내향성의 성향이 사회적 접촉에의 기피, 대인관계, 비사회성과 유관한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폐경이 갱년기 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폐경전 여성 278명과 폐경후 여성 302명을 대상으로 MMPI를 실시하였다. 성적은 폐경, 연령, 학력, 종교 및 남편의 생존여부등 각각의 일원배치법에 의하여 분산분석하고 폐경과 연령, 학력, 종교 및 남편의 생존여부 사이의 이원배치법에 의하여 분산분석하였다. 얻어진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폐경전 여성과 폐경후 여성에서 신뢰성척도, 정신병질-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 및 편집증척도의 점수는 높은 반면에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의 점수는 낮았다.

2) 연령이 많을수록 신뢰성척도의 점수는 높은 반면에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의 점수는 낮았다.

3) 폐경전 여성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폐경후 여성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우울증척도, 히스테리 척도, 정신병질-반사회적 이상성격척도, 정신쇠약증척도 및 정신분열병척도의 점수는 높았다.

4) 학력이 높을수록 교정척도와 남향성-여향성 흥미척도의 점수는 높은 반면에, 심기증척도, 히스테리 척도, 정신분열병척도, 사회적-내향성척도의 점수는 낮았다.

5) 불교를 믿는 여성들에서 경조증척도의 점수가 높았다.

6) 남편이 생존해 있는 여성보다 남편과 사별한 여성에서 신뢰성척도, 편집증척도, 정신쇠약증척도, 정신분열병척도 및 사회적-내향성척도의 점수가 높았다.

참 고 문 헌

- 1) Maoz, B., et al.: *The Perception of Menopause in Five Ethnic Groups in Israel, Acta. Obstet. Gynec. Scand., Vol. 65, Suppl., 1977.*
- 2) Blatt, M.H.G., et al.: *Vitamine E and Climacteric Syndrome,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Vol. 91, No. 6, 1953.*
- 3) 李吉弘: 閉經의 精神醫學의 特性分析, 大韓產婦人科學會雜誌, Vol. 21, No. 12, 1978.
- 4) Proudfit, C.M.: *Estrogens and Menopaus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236, No. 8, 1976.*
- 5) 張維臣: 폐경기와 女性生殖學, 人間科學, Vol. 6, No. 5, 1982.
- 6) Chacravarti, S., et al.: *Hormone Profiles after the Menopause, British Medical Journal, 2, 784, 1976.*
- 7) Lesh, A.: *Sexuality and the Climacteric, edited by Galeener, Current Practice in Obstetric and Gynecologic Nursing, The C.V. Mosby Co., Saint Louise, 1978.*
- 8) Kaluger, G., Kaluger, M.F.: *Human Development, The C.V. Mosby Co., Saint Louise, 1979.*
- 9) 박애심: 中年 여성의 폐경에 대한 인식과 건강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0)
- 10) Lauritzen, C.: *The female Climacteric Syndrome: Significance, Problems, Treatments, Acta. Obstet. Gynec. Scand., Vol. 51, 1966.*
- 11) Rybo, G., Westerberg, M.: *Symptoms in the post-menopause. A preliminary report, Acta. Obstet. Gynec. Scand., Vol. 50, 1971.*
- 12) Mckinlay, S.M., Jeffres, M.: *The menopausal syndrome, British Journal of Preventive Social Medicine, Vol. 28, 1974.*
- 13) Detre, T., et al.: *Management of the Menopaus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 88, 1978.*

- 14) Askel, S., et al.: *Vasomotor Symptoms, Serum Estrogen and Gonadotropin level in Surgical Menopause, American Journal of Obstet, Gynecol., Vol. 126, 1976.*
- 15) Stryker, J.C.: *Use of Hormone in Woman over Forty, Clinical OB & Gy., Vol. 20, No. 1, 1977.*
- 16) Achte, K.: *Menopause from the Psychiatrist's Point of View, Acta, Obstet. Gynec. Scand., Vol. 49, 1970.*
- 17) Ballinger, B.: *Psychiatric Morbidity and the Menopaus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31, 1977.*
- 18) 鄭範謨, 李定均, 陳渭教: *MMPI의 多面的 人性 檢査, 檢査法要綱, 코리안 테스트센터, 1965.*
- 19) Dahlstrom, W.G. et al.: *An MMPI Handbook Volume I: Clinical Interpre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71.*
- 20) Dahlstrom, W.G. et al.: *An MMPI Hand Book Volume II: Research Appli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71.*
- 21) 李定均: *한국인의 MMPI에 관한 研究(II) Anxiety Index 와 Internalization Ratio, 精神神經醫學, Vol. 3, No. 1:90-92, 1964.*
- 22) 李定均: *韓國人の MMPI의 關한 研究(III) 孤兒의 MMPI, 神經精神醫學, Vol. 3, No. 1:33-36, 1964.*
- 23) 李定均: *韓國人の MMPI에 관한 研究(V) 神經精神醫學, Vol. 5, No. 1:65-67, 1966.*
- 24) 李定均: *韓國人の MMPI에 관한 研究: 精神分裂症의 MMPI, Vol. 3, No. 2:28-33, 1969.*
- 25) 陳渭教: *MMPI 再標準化를 위한 豫備研究(碩士論文), 서울대학교학원, 1962.*
- 26) 張任源: *MMPI에 의한 산업재해 요인의 분석, 한국의과학 12권 4호, 1980.*